

천혜절경 피오르드 탐방
러시아 북유럽 6국 12일
 6/19, 7/3, 7/10, 7/31 출발 **3,599,000원부터***
 하안풍차투어 문의: 02-777-6566

“‘도시어부’로 5박6일 낚시 강행군...회 뜨는 실력 늘었죠”

(채널A)

19일 개봉 영화 '롱 리브 더 킹' 주연 **김래원**

배우 김래원(38)의 요즘 심리상태를 날씨에 비유하자면 '쾌청' 그 자체다. 웃음은 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역시 배우는 출연한 영화의 완성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주연 영화 '롱 리브 더 킹:목포영웅(롱 리브 더 킹, 제작 필름몬스터)을 관객 앞에 내놓는 김래원을 19일 개봉에 앞서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래원을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은 개봉을 보름이나 앞두고 4일 시사회를 열었다.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개봉 전 시사회 등을 통해 입소문을 퍼트리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기대를 감추지 않기는 김래원도 마찬가지다. "영화를 촬영하는 중간중간 연출자 강윤성 감독님에게 '다음 작품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그는 "그 말에 이 영화와 감독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부 담겨 있다"고 했다.



배우 김래원은 19일 개봉작 '롱 리브 더 킹:목포영웅'을 촬영하며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제작진과 함께 목적지를 정하는 유연한 현상이었다"고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신감은 개봉을 보름이나 앞두고 4일 일찌감치 열린 시사회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주)플러스엠

●“영화는 동화 같은 이야기”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롱 리브 더 킹'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극의 무대는 전라남도 목포. 오랜 상가를 허는 재건축 바람이 한창이다. 거대조직의 보스 장세출(김래원)은 상가 철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인권변호사 강소현(원진아)과 강렬한 첫 만남을 갖는다. 이를 계기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장세출은 드라마틱한 사건을 겪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출마한다.

얼핏 철지난 '조폭' 이야기처럼 비칠 수도 있는 영화를 관통하는 정서는 사실 '우직한 남자의 순정(純情)'이다. 김래원 역시 "시나리오를 읽고 멜로를 느꼈다"고 했다.

"감독님은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어요. 처음엔 저도 장세출이 매력적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 진지하고 생각이 많잖아요. (웃음) 그러다보니 제가 속한 그룹까지도 매사 진지해져요. 영화에서도 그렇죠. 세출과 그 조직원들이 너무 진지하니까 오히려 순수해보이잖아요. 기존 '조폭'과는 다르죠."

김래원은 '롱 리브 더 킹' 출연 제안에 망설임이 없었다고 돌아다봤다. 누적 조회수 1억 뷰가 넘는 인기 웹툰을 영화화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터였고, 앞서 '범죄도시'를 통해 "모든 캐릭터와 그 배우들까지 돌보이게 만든 강윤성 감독"에게 거는 기대도 컸던 덕분이다.

"예컨대 액션장면을 찍는다면, 감독님은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대신 '래원아, 날아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라고 먼저 물어요. 그러면 제가 답하죠. 그렇게 제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물으면서 모두의 의견을 듣죠. 누가 맞고, 틀리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목적지를 함께 정하는, 유연한 현상이었어요."

덕분에 김래원은 영화에서 '활활' 날았다. 최근에도 영화 '프리즌', 드라마 '닥터스' 등을 통해 저력을 확인시켰지만 이번 영화에서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와 작품을 통해 쌓은 실력을 한 번에 쏟아낸다. 아직 관객 평가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대표작 하나를 얻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자만해질까봐 낚시 시작”

김래원은 중학생 때 연기를 시작했다. 연기 경력 20년이 훌쩍 넘는다. 20대 초반에 소위 '청춘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덕분에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드라마에서도 승승장구했다. 그 무렵 낚시를 시작했다. 젊은 스타가 낚시를 '은둔의 취미'를 택한 이유는



영화 '롱 리브 더 킹' 속 김래원(오른쪽)

바로 그 '인기'를 의식해서이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로 한창 주목받을 때가 15년 전인데, 22살이었어요. 어릴 때죠. 사람이다보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주변 환경에 흔들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피해서 바다로 낚시를 갔어요. 어차피 (인기가) 지나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낚시는 지금 김래원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됐다. 낚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물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채널A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촬영을 진행했다. 강행군이었는데 지 헤를 내두른 그는 "촬영 내내 잡은 온갖 물고기를 전부 직접 회를 뜨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돌아왔다"며 웃었다.

"촬영이 없을 때 제 생활은 단순해요. 낚시하려고 바다에 가고요. 서울에 있다면, 일주일이 뻥해요. 하루는 조카 보려고 본가에 가고, 그 외에 배달음식 먹으면서 집에 있어요. 하하! 물론 이런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고립돼 있는 것 같아요."

무심한 듯 진지한, 그러면서도 자신의 길을 걷는 김래원의 매력은 '롱 리브 더 킹' 속 장세출을 통해서도 그대로 살아난다. 특히 극중 노래방에서 김동률의 노래 '사랑한다는 말'을 부르는 모습은 여성팬들의 '심쿵 유발'이 확실시되는 장면이다.

"못 불러도 된다고 해서 연습 없이 불렀어요. 사실 제 등판이 다 했죠. 뭐, (웃음) 지금껏 몇 의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이, 차분하게 해왔어요. 다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숙제가 있다면 '백지상태'이고 싶은 거죠. 제 색깔을 다 지우고 싶어요."

김래원의 다음 영화는 공효진과 함께 한 로맨틱 코미디 '가장 보통의 연애'이다. 이미 촬영을 마쳤고 올해 가을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백지상태"가 된 지금, 그는 어떤 인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을까. "악역이요. 차분하고 조곤 조곤해 보이는 인물인데, 마음에 '악'이 있는 캐릭터를 제일 골로 표현하면 어떨지 궁금해요."

이해리 기자 gaff1024@donga.com



조폭영화 아닌 남자의 순정 이야기 인기 웹툰 영화화...고민 없이 출연 집 아니면 낚시...나의 유일한 취미 내 색깔 지우고 악역 도전하고 싶다



김래원

▲1981년 3월19일생 ▲1997년 MBC 드라마 '나'로 데뷔 ▲2000년 영화 '청춘·청룡영화상 신인상' ▲2003년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연기대상 최우수상 ▲2004년 영화 '어린신부'·대중상 신인상 ▲2006년 영화 '해바라기' 이후 '인사동 스캔들' '강남 1970' 등 ▲2016년 SBS 드라마 '닥터스' ▲2019년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개봉 예정

연예뉴스 HOT 5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14일 결론



홍상수 감독

홍상수(60) 감독과 부인의 이혼 소송이 14일 결론에 다다른다. 홍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부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실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홍 감독은 2015년 연출작 '지금 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방식혁 대표가 미 그래미 어워드 투표에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그래미 어워드를 주최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정돼 내년 1월 수상자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게 됐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세계적인 수준을 지닌 작곡가, 프로듀서, 가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 매년 1월 그래미 어워드 투표권을 행사한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노래 '문차일드'와 '소우주' '134340'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2024년 달 탐사 우주비행선에서 우주비행사들이 들을 노래로 선정됐다.



강다니엘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독자 활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최근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그의 행보에 가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강다니엘은 9일 밤 11시 SNS 라이브방송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팬들과 대화를 나눴다. 워너원 해체 이후 솔로 활동을 예고했지만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벌이며 아쉬움을 자아낸 터여서 이날 강다니엘의 모습이 더욱 눈길을 모았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며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최민환

그룹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이 시구 논란에 휩싸였다. 최민환은 8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 Y CAR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경기에 앞서 부인 율희와 함께 각각 시구와 시타에 나섰다. 하지만 최민환이 돌이 지난 아들을 앞으로 안은 채 공을 던지면서 아들의 목이 꺾이는 모습이 포착돼 9일 일각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민환을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제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기생충, 열흘 만에 700만 관객 육박



영화 기생충

올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이 개봉 10일 만에 700만 관객에 육박했다. 5월30일 개봉한 '기생충'은 9일 현재까지 최소 68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생충'은 8일까지 누적 651만2518명을 불러 모았다. 토요일인 이날 하루 전국 1570여개관에서 63만여 명이 모였고, 일요일인 9일에도 최소 50만여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해 누적 700만 명에 달했다. '기생충'은 가난한 집안 식구들과 부잣집 가족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송강호를 비롯해 이선균, 최우식, 조여정 등이 주연했다.